

마이크로티칭이 예비보건교육사의 자기효능감 및 발표불안에 미치는 효과*

권 명 순** · 조 해 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직접간호제공자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연구자, 보건정책 결정자 등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Jeong & Yoo, 2010), 최근에는 국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보건교육사는 개인과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적절하게 교육하고 정책 개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받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Joint 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Terminology, 2001),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건강생활 실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Kim et al., 2008)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부터 민간자격시험이 있었으며 일본에서도 2003년부터 민간자격증제도가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2항에서 보건교육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이라 정하고 2010년 3월

에 첫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 치러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대중이 건강에 대해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건강한 행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발표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가 되기 위한 예비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훈련되어야 한다.

발표불안은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불안으로 개인이 다수의 타인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공식적, 비공식적 상황에서 불안을 나타내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생리적 및 행동적 반응이다(Fremouw & Breitenstein, 1990). 발표불안의 원인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발표와 관련된 비합리적 사고, 그리고 구체적인 발표 행동이나 기술의 부족 등이다(Kim, 1995). 한편, 발표불안은 발표와 관련된 성취 경험을 제한되게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일 수 있으며, 낮은 자기효능감은 발표수행을 못할 것이라는 낮은 기대와 믿음으로 발표불안을 더욱 악화시켜 악순환이 계속된다(Jang & Shin, 2010). 따라서 발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표불안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1-04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교신저자 E-mail: kwon1314@hallym.ac.kr)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과 박사과정

투고일: 2012년 1월 13일 심사회의일: 2012년 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6일

최근 들어 발표능력 향상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이크로티칭이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티칭 기법은 미국, 호주, 필리핀 등 여러 교사 양성기관에서 실험과정을 거쳐 채택되고 있으며, 예비교사들 스스로가 교수-학습 도입 및 전개, 질의응답의 기술 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Kwon, 1996; Park, Kim, & Cho, 1992). 마이크로티칭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확인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교수방법 중 하나로 수업 시간, 규모, 내용 등을 축소하여 5-20분의 모의수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비디오 및 오디오 기록을 이용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교수기술의 향상을 도모한다(Jensen, 1974). 마이크로티칭은 전반적인 수업 기술을 적용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의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입장도 경험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수업 실습이 가능하다(Du Toit, 1990).

마이크로티칭은 청중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두려움 없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기존에는 예비교사를 위한 학습방법으로 많이 활용되었다(Chung, 2004; Jang & Shin, 2010; Park, 2007; Seo, 2009). 반면 보건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발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대학생에게 라벤더 향을 적용한 연구(Lee & Lee, 2006)가 시행되었을 뿐, 보건교육을 담당할 건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발표능력 향상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건교육사의 발표능력 향상을 위해 마이크로티칭이 예비보건교육사의 자기효능감과 발표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보건교육사의 발표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이크로티칭이 자기효능감과 발표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마이크로티칭이 예비보건교육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 2) 마이크로티칭이 예비보건교육사의 발표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마이크로티칭이 예비보건교육사의 자기효능감과 발표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이다(Table 1).

2. 연구 대상

표본 수는 G power 3.1.3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티칭을 적용한 연구 Chung(2004)에서 구해진 효과크기(Effect size $f = .48$)를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각 집단 당 20명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H대학교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간호학부 3학년 2개반 학생 중 연구목적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반의 22명이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 대조군에서 응답이 불충분한 1명이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실험군 22명, 대조군 2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Table 1. Research Design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n=22)	Ye1	X	Ye2
Control group (n=21)	Yc1		Yc2

Ye1, Ye2 : Self-efficacy, Speech anxiety

X : Microteaching

본 연구는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과목이 진행되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실험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실험처치 전 자기효능감과 발표행동을 측정하는 사전검사이고, 두 번째 단계는 마이크로티칭을 이용한 처치를 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는 마이크로티칭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검사이다.

1) 사전조사

사전조사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발표 전의 자기효능감과 발표불안을 측정하였다.

2) 마이크로티칭

사전검사 후 동일 과목 수업시간에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티칭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마이크로티칭은 준비단계, 수업단계, 피드백 및 평가 단계, 재수업 단계로 이루어졌다. 준비단계에서는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교과목 주제 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Microsoft Office PowerPoint 2007, 모형, 인형 등을 활용하여 7분 동안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였다. 수업단계는 7주차 첫 번째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7분 동안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의 발표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드백 및 평가단계는 7주차 두 번째 수업에서 이루어졌다. 녹화된 동영상 내용을 보고 관찰자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를 시행하였다. 마이크로티칭 관찰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목소리, 몸동작, 매체활용, 강의진행, 강의구성, 질문/대답/반응, 장단점에 대해 평가하였고, 관찰자인 교수는 발표행동에 대한 내용적 요소, 음성적 요소, 체언적 요소를 추가로 평가하였다. 먼저 동료평가와 자기평가에 대해 토론한 후 관찰자로부터 비언어적 행동과 언어적 행동에 대해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재수업 단계는 8주차에 이루어졌으며, 피드백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이전 발표를 보강한 내용으로 15분 동안 재발표를 시행하였다.

3) 사후검사

실험군은 동영상 촬영한 발표 내용을 발전시켜 약 15분 동안 재발표를 시행한 후 자기효능감과 발표불안

을 측정하였고, 대조군은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교과목 주제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한 주제로 약 15분 동안 발표한 후 자기효능감과 발표불안을 측정하였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티칭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자기효능감

Kim(1997)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5문항)의 3개 하위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약간 아니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로 측정하는 6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문항 9문항은 역채점하였다. 평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200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 .95$ 로 나타났다.

2) 발표불안

발표불안 도구는 Gilkinson(1942)이 대학생들의 발표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104개 문항으로 된 도구를 Paul(1966)이 단축형으로 개발한 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PRCs)를 Cho, Lee와 Park(1999)이 번역한 한국판 발표불안척도(Speech Anxiety Scale, SA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즉,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그렇다(3점)', '극히 그렇다(4점)'로 측정하였고, 부정문항 14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평점이 높을수록 발표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SAS의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 .94$ (Cho et al., 199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 .97$ 로 나타났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처치 전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발표불안의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자기효능감과 발표불안 차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마이크로티칭을 적용하기 전 사전조사에서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을 검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기효능감 점수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083$, $p=.285$).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도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발표불안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682$, $p=.500$). 따라서 마이크로티칭 적용 전 두 그룹 간에 자기효능감과 발표불안은 차이가 없어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2. 마이크로티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마이크로티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사전조사에서 $3.80\pm.44$ 점, 사후조사에서 $4.03\pm.62$ 점으로 측정되었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3.97\pm.61$ 점, 사후조사에서 $4.07\pm.55$ 점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하위영역 중 자신감 점수는 실험군은 사전조사에서 $3.42\pm.60$ 점, 사후조사에서 $3.96\pm.69$ 점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3.55\pm.87$ 점, 사후조사 $3.84\pm.92$ 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자기효능감과 하위영역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결과의 변화 추이는 Figure 1, 2, 3,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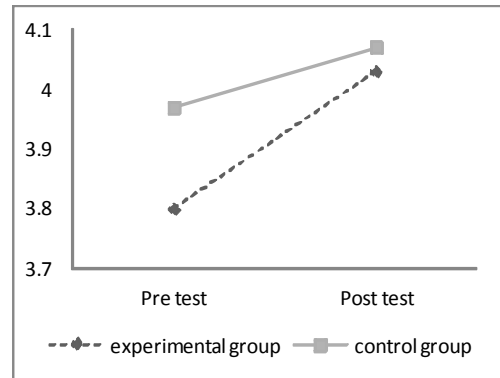


Figure 1. Self-efficacy score of groups and time

Table 2. Homogeneity Test of Self-efficacy, Speech Anxiety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N=43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22)	Control group (n=21)	t	p
	M±SD	M±SD		
Self-efficacy	3.80±.44	3.97±.61	-1.083	.285
Self-confidence	3.42±.60	3.55±.87	-.566	.575
Self-regulatory efficacy	4.27±.55	4.44±.60	-.984	.331
Task difficulty preference	3.17±.72	3.42±.86	-1.02	.312
Speech anxiety	2.05±.44	1.93±.66	.682	.500

Table 3. Self-efficacy and Speech Anxiety Score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3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re test M±SD	Post test M±SD	Pre test M±SD	Post test M±SD
Self-efficacy	3.80±.44	4.03±.62	3.97±.61	4.07±.55
Self-confidence	3.42±.60	3.96±.69	3.55±.87	3.84±.92
Self-regulatory efficacy	4.27±.55	4.31±.74	4.44±.60	4.44±.60
Task difficulty preference	3.17±.72	3.43±.92	3.42±.86	3.57±.78
Speech anxiety	2.05±.44	1.74±.53	1.93±.66	1.7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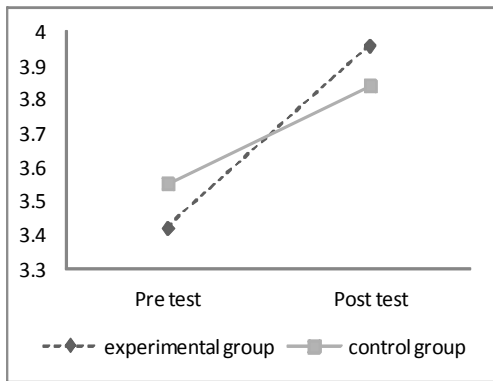


Figure 2. Self-confidence score of groups and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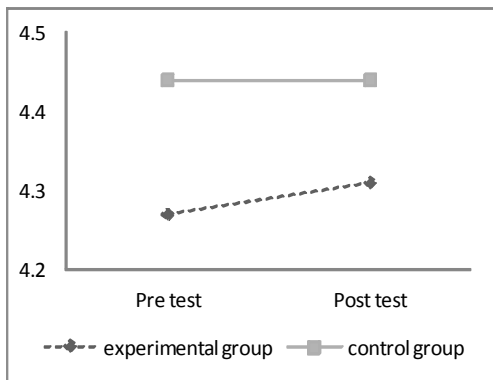


Figure 3. Self-regulatory efficacy score of groups and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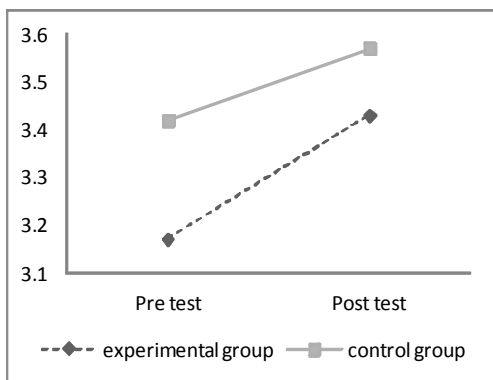


Figure 4. Task difficulty preference score of groups and time

집단 및 측정 시기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4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사전·사후 자신감 점수의 차이($F=9.508$, $p=.004$)가 유의하였고, 자기효능감에서 집단별 차이 ($F=.537$, $p=.468$), 시기별 차이($F=3.379$, $p=.073$),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 차이($F=.585$, $p=.449$)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사전에 측정된 자신감에 비해 사후의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 마이크로티칭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효과

마이크로티칭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표불안 점수는 실험군은 사전조사에서 $2.05 \pm .44$ 점, 사후조사에서 $1.74 \pm .53$ 점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1.93 \pm .66$ 점, 사후조사 $1.79 \pm .53$ 점으로 나타났으며(Table 3) 변화 추이는 Figure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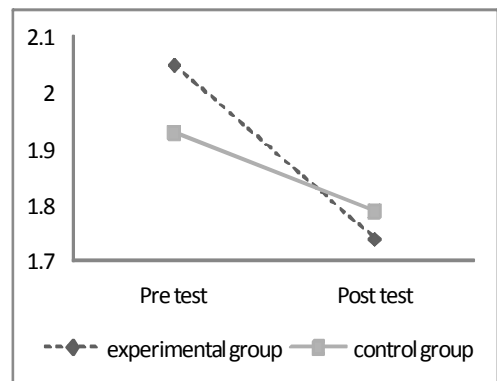


Figure 5. Speech anxiety score of groups and time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시기별 발표불안은 유의한 차이($F=7.235$, $p=.010$)가 있었다(Table 4). 즉, 사전에 측정된 발표불안에 비해 사후의 발표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예비보건교육사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발표불안 감소를 위해 H대학교 간호학부 3학년 학생 43

Table 4. Effect of Microteaching on Self-efficacy and Speech Anxiety N=43

	ss	df	MS	F	p
Self-efficacy					
group	.245	1	.245	.537	.468
time	.572	1	.572	3.379	.073
group x time	.099	1	.099	.585	.449
error	6.941	41	.169		
Self-confidence					
group	.000	1	.000	.000	.991
time	.654	1	3.654	9.508	.004**
group x time	.345	1	.345	.897	.349
error	15.754	41	.384		
Self-regulatory efficacy					
group	.489	1	.489	.716	.402
time	.009	1	.009	.095	.760
group x time	.009	1	.009	.095	.760
error	4.040	41	.099		
Task difficulty preference					
group	.819	1	.819	.942	.338
time	.890	1	.890	1.849	.181
group x time	.056	1	.056	.117	.735
error	19.723	41	.481		
Speech anxiety					
group	.021	1	.021	.047	.829
time	1.070	1	1.070	7.235	.010*
group x time	.157	1	.157	1.059	.310
error	6.061	41	.148		

* : p<.05, ** : p<.01

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티칭을 제공하고, 마이크로티칭 적용 전과 후에 발표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과 발표불안의 변화를 측정하여 마이크로티칭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바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과제 수행 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 비해 현명한 행동을 하고 난이도가 높은 학습과제 수행 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정서와 자신감을 갖고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선호한다(Kim & Kim, 2007). 본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구성되어 있다(Kim, 1997). 자신감은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Choi, 2006).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 자기 성찰과 자가 평가 등을 통해 자기조절적 기제를 수행하는 정도이고, 과제난이도 선호는 스스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이다(Kang, 2009).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Kim과 Kim(2007)이 측정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3.7점, 자신감 3.4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자기효능감 변화는 자신감 영역에서만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티칭을 적용한 그룹의 자신감 점수의 변화 기울기가 대조군의 변화 기울기와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마이크로티칭을 한번 시행하였고 사후측정 역시 한번만 측정한 것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는 것에 제한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Chung(2004)은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발표할 때 고쳐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발표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발표 능력 개선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키며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이크로티칭은 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향후 질 높은 보건교육의 역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Chung(2004)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마

이크로티칭을 활용한 발표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티칭 기법이 포함된 발표불안 감소 집단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었으며(Jang & Shin, 2010), Seo(2009)는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대학생인 예비교사에게 마이크로티칭을 경험하도록 한 후 수업의 효과를 질적 분석한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로서 전문가적 태도를 준비하는데 있어 마이크로티칭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티칭을 적용한 후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Kim과 Kim(2009), Sung(2005)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간호학과 학생은 간호학 특성 상 이론 수업과 임상현장 실습을 받아야 하고, 간호사국가고시를 준비해야하는 등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간호학과의 과중한 교과과정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역시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기위해 농축수업을 하고 있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로 학업부담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인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회성에 그친 마이크로티칭이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Chung(2004)과 Seo(2009)에 의하면 일시적인 마이크로티칭은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티칭을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인 마이크로티칭을 실시하기위해서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변화를 관찰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발표불안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상황에 대해 불안을 나타내는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으로 부적응 반응으로 적절한 발표불안은 학습동기 및 성취동기로 이어져 자신감을 향상시키지만 지나친 불안은 적응능력을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Fremouw & Breitenstein, 1990; Kim & Lee, 1995). 적당한 발표불안은 학습 및 성취동기를 유발하는 등의 긍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지만, 지나친 불안은

발표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표불안을 해소하는 중재가 필요하다(Choi, 1996; Lee & Lee, 2006). 본 연구에서 발표불안은 사전측정보다 사후측정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발표불안 변화 기울기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일회성에 그친 마이크로티칭의 제한점 때문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Cho(2001)와 Jang과 Shin(2010)은 비디오피드백을 이용한 인지행동적 접근이 발표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2회 이상 마이크로티칭은 예비보건의교육사의 발표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이크로티칭의 기본적인 목적은 교수기술의 향상이다(Richards, 1996). 본 연구에서의 자신감 향상과 발표불안 감소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자신의 발표 행동을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녹화된 동영상과 마이크로티칭 평가준거에 비추어 평가하고 반성함으로써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라 사료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발표능력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전문성과 관련하여 교과 지식 습득의 중요성, 수업에 대해 학습자 입장에서 사고 전환, 수업 설계 필요성, 철저한 수업 준비의 중요성, 수업 실행 기술, 설계적인 수업 전략에 대한 고민, 상호 피드백을 통한 되돌아보기, 꾸준한 노력의 필요성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수업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eo, 2009).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하고, 질차가 번거로우며 녹화 장비 등의 시설 준비가 필요한 단점 때문에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예비보건의교육사의 발표능력 향상이 훗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질 높은 보건의교육의 바탕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이크로티칭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보건의교육사의 발표능력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마이크로티칭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발표불안의 변화를 규명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이다. 연구대상은 간호학부 3학년 학생 43명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영역 중 자신감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발표불안 점수는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차례 마이크로티칭을 적용한 한계점이 있었다. 마이크로티칭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고 발표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마이크로티칭이 대상자의 발표능력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일개 대학의 학생에 한정된 대상자와 마이크로티칭 적용 횟수, 그리고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시간과 비용, 까다로운 절차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하지만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꾸준히 증명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개대학의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마이크로티칭을 2회 이상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전, 사후, 추후 검사를 실시, 분석하여 마이크로티칭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Cho, Y. (2001). The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peech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3), 399-411.

Cho, Y., Lee, M., & Park, S. (1999). A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peech anxiety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2), 165-178.

Choi, J. Y. (1996). *The effect of speech anxiety reduction training program on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between cognitive and behavioral approa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Choi, M. J.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life adjustment, and creative disposi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Chung, T. (2004). The effect of speech activity using microteaching on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2*(4), 189-208.

Du Toit, P. H. (1990). Microteaching as meta-learning opportunity for lectures in teaching.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1*(6), 1920.

Fremouw, W. J., & Breitenstein, J. L. (1990). Speech anxiety. In H. Leitenberg(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N. Y.: Plenum Press.

Gilkinson, H. (1942). Social fears as reported by students in college speech classes. *Speech Monography, 9*, 141-160.

Jang, S. S., & Shin, H. (2010). The effects of a multi-dimensional group program using video feedbacks for the reduction of public speaking anxiety on the presentation anxiety, self-efficacy and presentation behaviors among th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2), 175-187.

Jensen, R. N. (1974). *Microteaching [Microteaching: planning and implementing a competency-based training program]*. (Yeu, H. R Trans). Seoul: Moo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Jeong, H. S., & Yoo, Y. S. (2010).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1), 29-38.

Joint 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 Terminology (2001). *Report of the 2000 Joint 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Terminology*. Reston, VA: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Health Education.
- Kang, S. Y. (2006).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nurses' burnout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ang, S. Y. (2009). Relationships of self-efficacy to creative disposition and ability in university students major in health care.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14(3), 49-66.
- Kim, A. Y. (1997).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2), 1-19.
- Kim, K. H., & Kim, G. D.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al Nursing Education*, 13(2), 229-236.
- Kim, K., Kim, K., Kim, Y., Kim, H., Park, K., Park, C. M., & Lee, M. (2008). Recommenda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for developing the Korean credentialing policy of health education specialis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5(2), 73-89.
- Kim, K. S. (1995).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reduction training of speech anxiety and public speech rehearsal on college students: speech anxiety and speech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im, K. S., & Lee, E. J. (1995). The cognitive training for the public speech.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8(1), 27-80.
- Kim, Y. S., & Kim, Y. H. (2009). Effects of brain respiration program on test anxiety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2), 251-261.
- Kwon, S. H. (1996). A study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micro-teaching system.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14(1), 145-163.
- Lee, I. S., & Lee, K. J. (2006). Effects of lavender fragrance on speech anxiety and public speech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 174-182.
- Paul, G. L. (1966). *Insight versus desensitization in psychotherap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k, S., Kim, S., & Cho, J. (1992). The effect of microteaching on teaching skill for student teacher of earth science. *Journal of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13(3), 269-282.
- Park, Y. Y. (2007). An investigation on employing microteaching in pre-service elementary English teacher education programs. *Primary English Education*, 13(1), 49-74.
- Richards, J. C. (1996). *Teacher education for language teachers: Content and process. Occasional Paper(4)*. Institute of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The University Auckland, New Zealand.
- Seo, Y. (2009). A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and strategies and microteaching for student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4), 271-297.
- Sung, M. H. (2005).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ttachment, self-efficacy and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9(2), 316-327.

The Effect of Microteaching on Self Efficacy and Speech Anxiety for Student Health Educators

Myung Soon Kwon(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Hae Ryun Cho(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icroteaching for student health educators. **Methods:** Subjects included 43 students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H" university. In order to measure the degree of self-efficacy and speech anxiety at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underwent training in microteaching.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variance in self-efficacy and speech anxiety was observed between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ose in the control group. However, self-confidence, a sub-domain of self-efficacy,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from pretest to post-test. In addition, speech anxiety measured during the post-test showed improvement, when compared with that of the pretest.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preliminary evidence that microteaching may result in improved speech behavior.

Key words : Educational technique, Self efficacy, Speech, Anxiety